

세미나자료 2024-07

2024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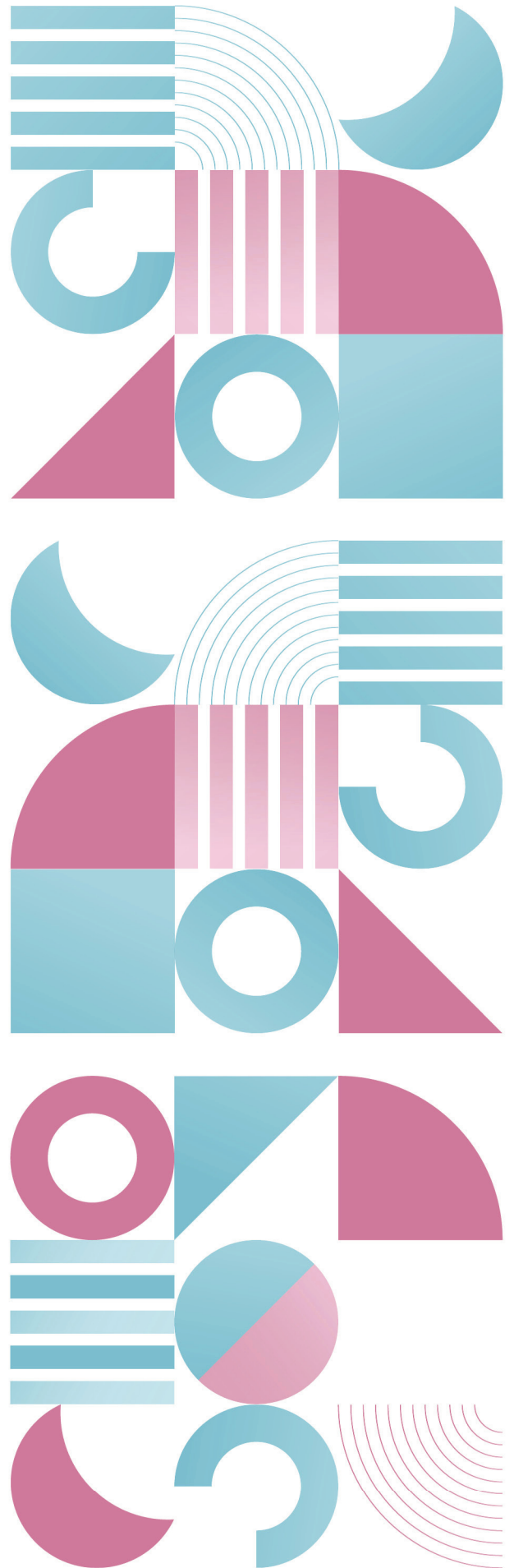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2024년 11월 8일(금)
14:00~16:00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Program

- 일 시 | 2024. 11. 8.(금). 14:00~16:00
- 장 소 |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
- 일정표

사회: 권미경 선임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시 간	세부 일정	
14:00~14:10	개회 (참석자 소개) 환영사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	
14:10~15:00	주제 발표1 (25분)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분석 발표: 차승은 교수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주제 발표2 (25분)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발표: 김지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5:00~15:40	토론	토론1: 유재언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토론2: 조선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40~16:00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토론3: 정아름 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Contents

환영사	황옥경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01
발표 1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분석 차승은 교수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03
발표 2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김지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17
토론	토론1: 유재언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39
	토론2: 조선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1
	토론3: 정아름 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45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황옥경입니다.

오늘 제 4차 KICCE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들어가는 가을의 단풍처럼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함께 결실을 맺어가는 시기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위한 육아정책연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부모, 현장, 아동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태어나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책변화를 선도하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수행의 일환으로 오늘 토론회에서는 육아를 하고 있는 가구의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실감하는 삶의 질과 육아하는 부모님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생 시대에 자녀양육은 생애과업 달성이 아닌 선택이 되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택가격, 일·가정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의 저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자녀의 양육보다는 개인의 성취나 여가 등 개인적 삶의 가치들과 출산과 공존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어, 양육하는 부모님들의 삶의 다양한 영역속에서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육아를 하는 가구의 삶의 질 전반과 시간사용, 행복감, 부모됨에 대한 인식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육아를 하는 가구에서 느낄 수 있는 삶의 행복과 가치, 하지만 유지하기 어려운 삶의 질 요소 등을 살펴보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발표되고 토론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지속해서 발전시켜, 육아하는 가구와 그 가구에서 자라는 아동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연구를 올해 한해 수행하고 발제를 맡아주신 수원대학교 차승은 교수님, 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 박사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가천대학교 유재언 교수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미 박사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아름 과장님, 또한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아주신 권미경 박사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 외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말씀 드립니다.

2024년 11월 8일

육아정책연구소장 황 옥 경

2024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발표 1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분석

차승은 교수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시간분석: 2019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비교분석

수원대학교 아동가족복지학과 차승은

연구 배경: 자녀돌봄의 변화와 양육방식에서 진화

자녀돌봄시간 연구의 주요 경향

- 기존 연구경향: 양육시간(신체적, 발달적 돌봄활동의 총합)을 중심으로 부모의 삶을 분석해 왔음
- 2000년대 이후: 부모의 역할은 단순한 돌봄 활동을 넘어서 심리·사회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됨
- **몰입육아(Intensive Parenting)**의 개념 등장(Heys, 1982): 부모의 자녀에 대한 몰입이 전 계층에서 증가하고 있음 (노동집약적, 감정 몰입적이며 자녀중심적 성격을 가짐.)
- 이는 직접돌봄 시간이 아니라, 자녀 곁에서 상시적으로 지켜보는 '맘도는 돌봄'을 포함할 것을 시사

연구배경: 사회변화와 육아방식의 변화

최근 부모들은 왜 자녀양육에 더욱 몰입하는가?

- **사회적 불확실성 증가:** 부모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는 경향이 있음
- **인적자본의 중요성:** 자녀의 성공을 위해 부모의 개입과 양육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확산
- **사회적 안전문제:** 지역사회의 안전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강화됨

주목할만한 변화는 무엇인가?

-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들의 자녀양육 역시 “몰입육아”의 속성을 보임
- 전계층적 양육몰입 현상으로 인식: 과거에는 중산층 여성에게만 보였던 몰입육아가 전 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음
- 다양한 부모관련 정책들도 “재가족화” 경향과 부모됨의 시간을 강조하는 경향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 연구의 필요성: 몰입육아가 부모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함.

- 1) 자녀돌봄시간을 직접돌봄시간과 맴도는 돌봄(함께 하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제시
- 2)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생활시간을 비교하는 작업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최근 한국 육아가구에서 자녀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추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육아/비육아가구 생활시간비교
 - 육아/비육아가구의 정서와 생활시간 관련성 고찰
- 3) 성별과 계층에 따라 자녀돌봄시간에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드러내는 작업

연구방법: 자료 및 표본

- 사용된 데이터: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 활용
-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수집한 자료로, 총 8,000여 가구, 2만여 명이 2일간 시간일지를 작성한 내용활동 기록은 10분 단위로 이루어짐 (자정부터 23시 50분까지)
- 분석 대상: 만 26~49세의 성인으로 구성된 가구, 0-12세 자녀를 둔 '육아가구'와 자녀가 없는 '비육아가구' 비교
 - 육아가구: 만 0-12세 자녀가 있는 가구, 총 4,101명의 응답자이 중에서 자녀연령에 따라 세 그룹으로 구분: 미취학 자녀(0-6세), 초등 저학년(7-9세), 초등 고학년(10-12세)
 - 비육아가구: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가구, 총 1,354명의 응답자

연구방법: 변수측정 및 소개

- 시간 사용의 분류
 - 개인유지시간: 수면, 식사, 개인 위생 관리 등
 - 의무시간: 유급 노동, 가사노동, 돌봄, 쇼핑 등
 - 재량시간: 교제, 여가, 문화활동, 운동, TV 시청 등
- 돌봄시간의 구체적 분류:
 - 자녀직접돌봄시간: 자녀의 신체 돌봄, 대화, 공부 도움, 놀이, 책 읽어주기 등의 활동
 - 자녀와 함께한 시간: 부모가 자녀와 같은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간접 시간 (예: 식사 시간, 함께한 여가 시간)
- 통제 변수:
 - 성별, 연령, 지역, 취업 여부, 교육 수준, 가계소득, 가구원 수 등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결과1: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생활시간비교

〈표 III-2-1〉 가구 유형별 생활시간배분 양상과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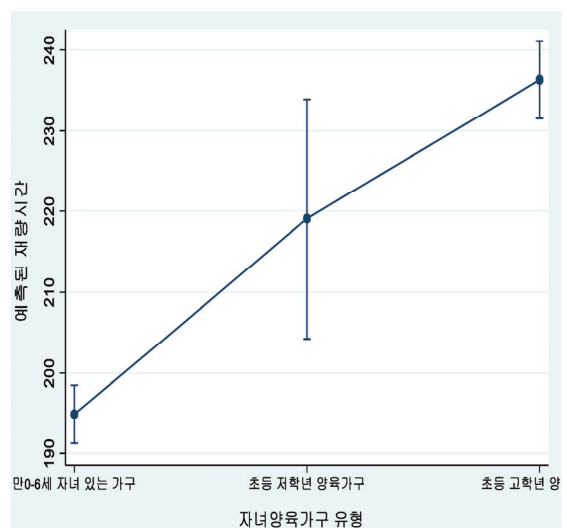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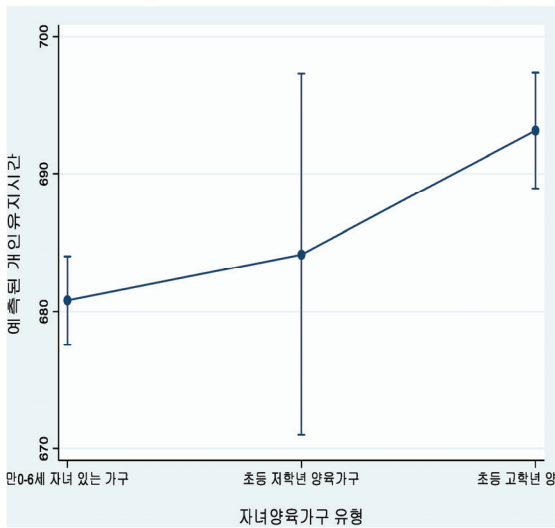
단위: 분

	구분	개인유지	의무시간	재량시간
전체	육아가구(A)	689.48	543.44	211.01
	비육아가구(B)	701.03	470.22	268.74
	차이 (A-B)	-15.54	73.22	-57.73
요일 평일	육아가구(A)	649.81	618.46	171.63
	비육아가구(B)	666.40	552.41	221.17
	차이 (A-B)	-16.59	66.05	-49.54
토/일요일	육아가구(A)	741.49	426.07	272.63
	비육아가구(B)	749.45	355.27	335.27
	차이 (A-B)	-7.96	70.08	-62.64
남자	육아가구(A)	684.38	536.12	219.36
	비육아가구(B)	698.97	478.61	262.41
	차이 (A-B)	-14.59	57.51	-43.05
여자	육아가구(A)	686.50	550.35	203.13
	비육아가구(B)	702.52	464.14	273.33
	차이 (A-B)	-16.02	86.21	-70.20

연구결과2: 육아가구 내에서 자녀 연령별 생활시간 비교

개인유지시간(수면, 식사, 개인위생, 건강관리 등)

재량시간(교제, 문화생활, 운동, TV, 종교활동, 취미, 등)



연구결과2: 육아가구 내에서 자녀 연령별 생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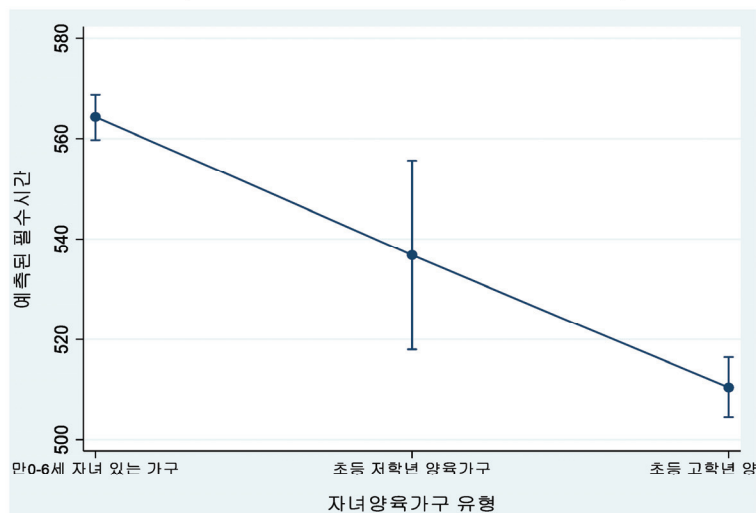
〈표 III-2-4〉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재량시간 분포: 평일, 주말

구분	단위: 분						
	교제	종교 활동	문화/ 관광	TV/ 미디어	운동	게임/ 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평일 육아가구(A)	38.21	2.97	4.00	78.62	16.22	14.65	9.79
비육아가구(B)	42.85	2.91	3.78	105.43	24.37	15.30	11.35
(A-B) 차이	-4.64	0.06	0.22	-26.81	-8.15	-0.65	-1.56
Prob > F	.05	.95	.85	.00	.00	.75	.13
주말 육아가구(A)	43.58	9.99	14.52	136.74	19.66	26.61	11.20
비육아가구(B)	53.42	20.66	9.28	170.18	32.11	25.02	8.93
(A-B) 차이	-9.84	-10.67	5.24	-33.44	-12.45	1.59	2.27
Prob > F	.00	.00	.05	.00	.00	.65	.10

주: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요일, 취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Prob > F값은 ANCOVA 분석 후 F값의 통계적 유의미도 수치를 나타냄.

연구결과2: 육아가구 내에서 자녀 연령별 생활시간 비교

의무시간(유급노동, 가사노동, 돌봄노동, 이동시간 등)



연구결과3: 육아가구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

〈표 III-2-6〉 육아 가구 유형별 자녀와 식사, 교제, 여가시간에서 부와 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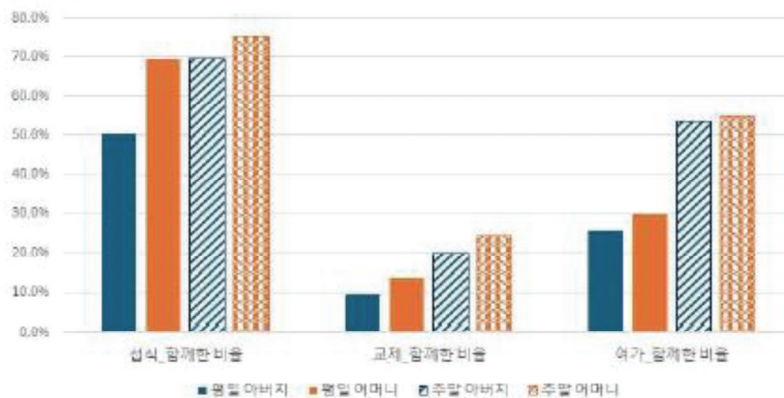
단위: 분, %

구분	자녀직접들봄 시간		자녀와 함께한 식사		자녀를 동반한 교제		자녀와 함께한 여가 ^a	
	행위자 비율 ^b	행위 시간 ^c	행위자 비율 ^b	행위 시간 ^c	행위자 비율 ^b	행위 시간 ^c	행위자 비율 ^b	행위 시간 ^c
아버지								
미취학	69.4%	93.1	69.0%	68.77	16.8%	46.4	44.8%	99.9
초등 저학년	50.0%	61.6	78.7%	62.81	21.3%	43.5	40.2%	96.7
초등 고학년	22.0%	51.5	36.2%	66.82	7.2%	47.5	22.1%	110.6
어머니								
미취학	97.0%	193.0	88.0%	76.56	23.6%	51.6	50.9%	92.7
초등 저학년	90.0%	111.5	88.3%	73.53	17.2%	55.5	44.5%	88.4
초등 고학년	43.0%	84.4	45.8%	74.61	9.0%	54.9	21.6%	96.4

주: a. 여가활동: 문화/관광, 읽기 활동, TV 보기, 운동, 게임-놀이, 아무것도 하지 않기 외 기타 여가활동이다.
 b. 행위자 비율이란 "함께한 사람"으로 자녀를 언급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c. 행위시간이란 자녀와 함께 한 행위의 평균 지속시간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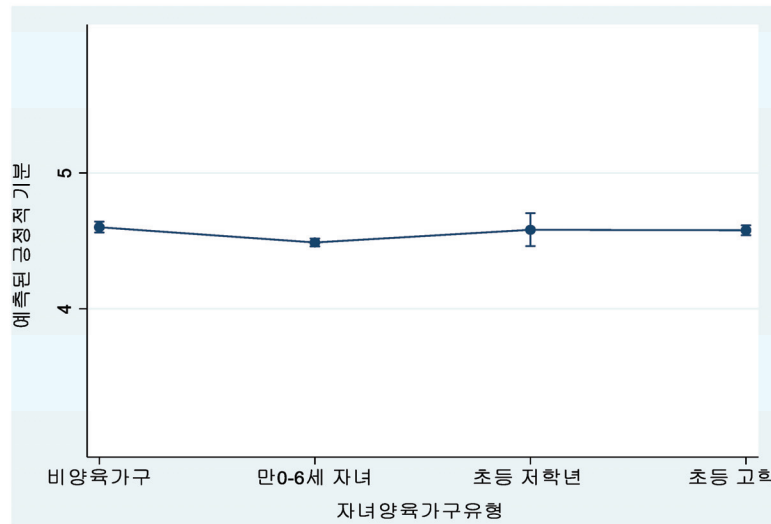
연구결과3: 육아가구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

[그림 III-2-2]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식사, 교제, 여가활동에서 행위자 비율: 주말과 평일



주: 육아/비육아가구 두 집단 간 평균과 그 차이를 관련 변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산출함(ANCOVA 모델).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지역, 직업여부, 교육수준, 가계소득 그리고 가구원 수를 활용함.

연구결과4: 시간사용과 긍정적 기분 (비육아가구/육아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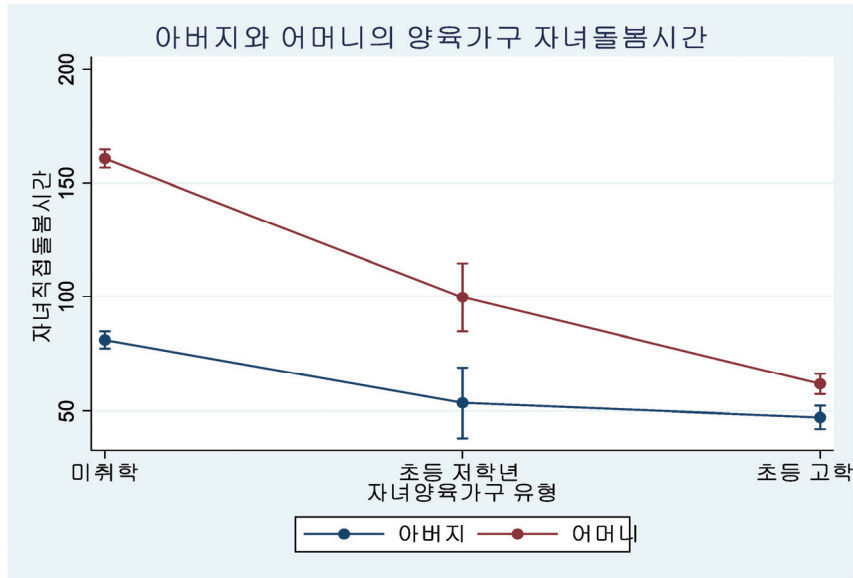
연구결과4: 시간사용과 긍정적 기분 (비육아가구/육아가구)

〈표 III-2-7〉 육아-비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과 관련이 있는 활동 시간 요약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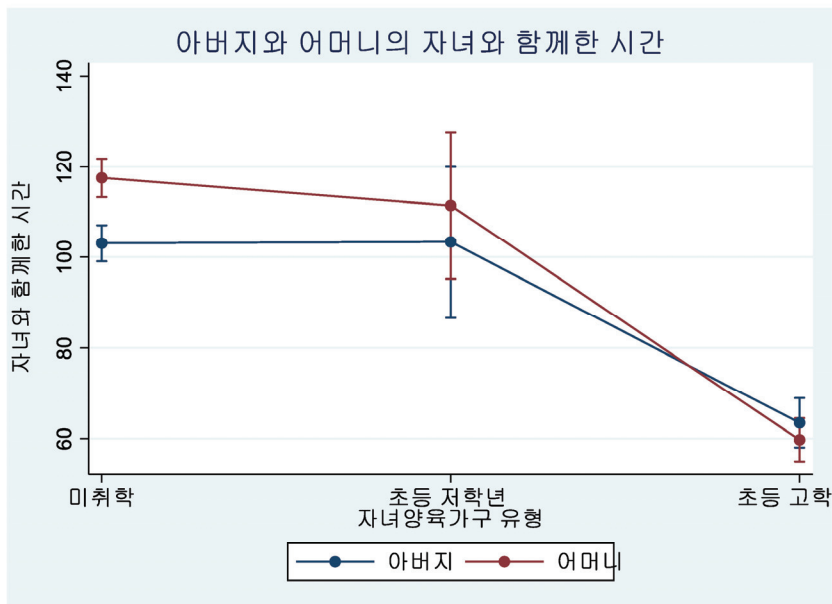
독립변수	종속변수: 긍정적 기분			
	비육아가구	p value	육아가구	p value
유급 노동시간	-	.000	-	.000
가사노동시간	-	.014	-	.001
재량시간	+	.669		
순수 재량시간			+	.113
돌봄시간	+	.861	-	.000
자녀와 함께한 시간			+	.000
R2	.06		.05	

주: 제시된 수치는 부호는 비표준화계수 값의 부호를 나타냄. p value값은 비표준화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수치임. 제시된 표는 요약표이며, 전체표는 부록에 수록하였음. 순수재량시간은 육아가구에서만 도출한 수치로 전체 재량시간에서 자녀와 함께한 시간(자녀와 함께한 교제 및 자녀와 함께한 여가)을 뺀 수치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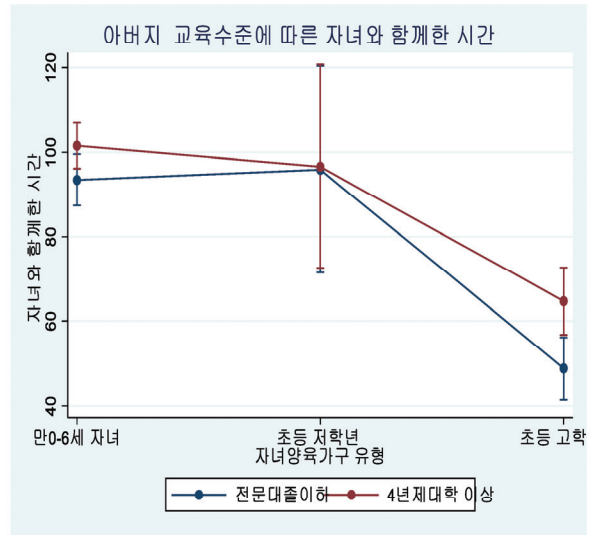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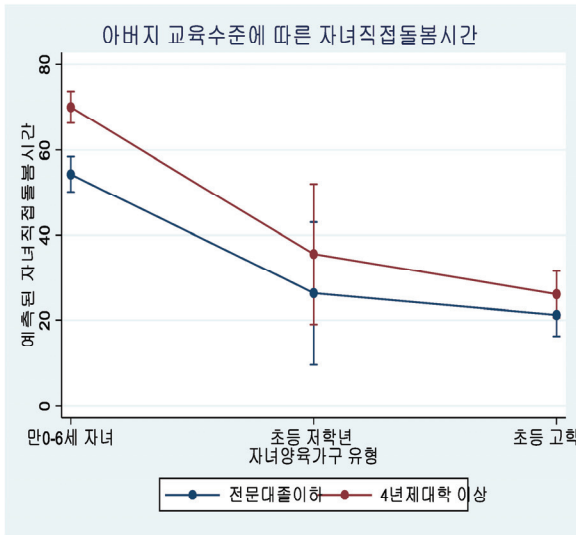
연구결과5: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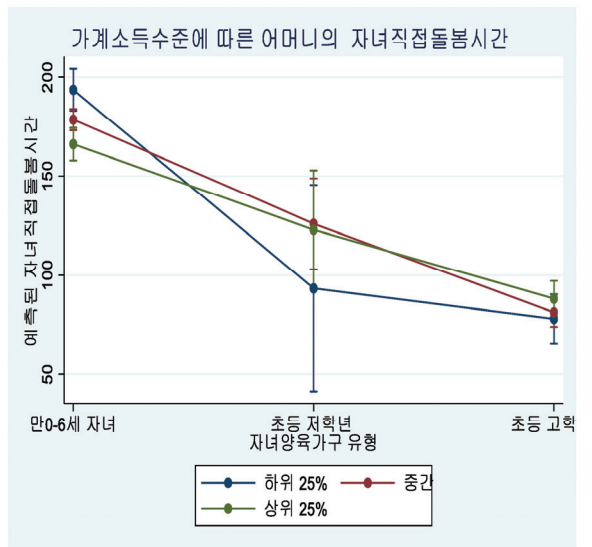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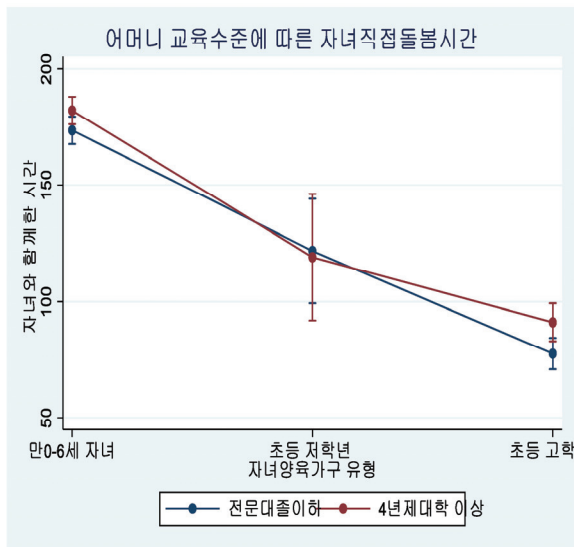
연구결과5: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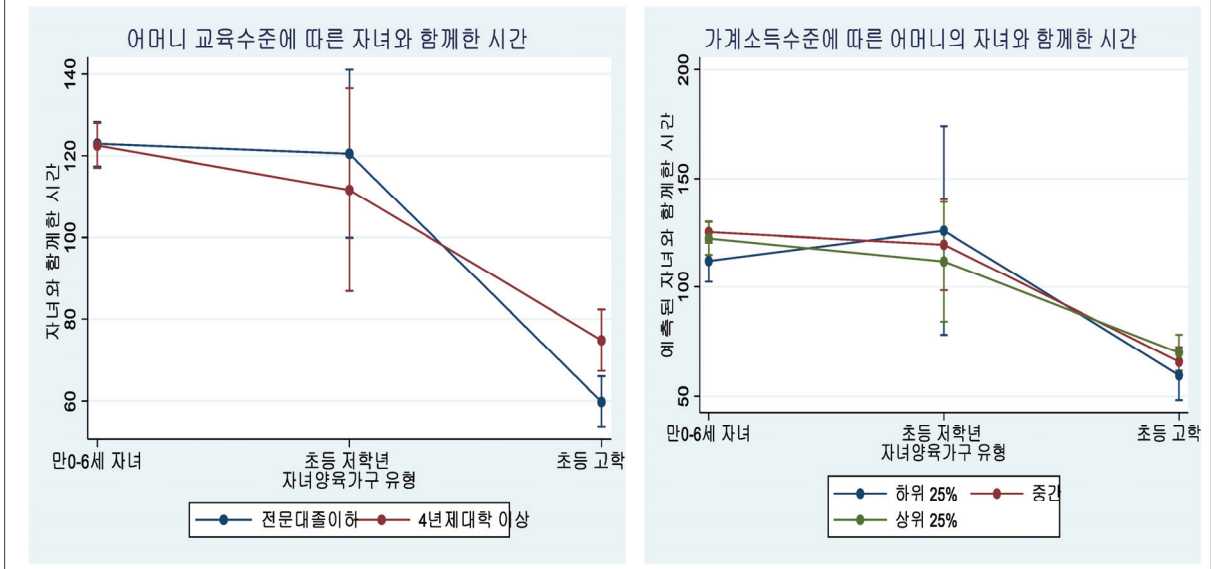
연구결과6: 아버지의 자녀돌봄과 자녀와 함께한 시간



연구결과7: 어머니의 자녀돌봄시간-교육수준과 가계소득 차이



연구결과7: 어머니의 자녀와 함께한 시간-교육수준과 가계소득 차이



연구결과 요약

-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의 시간 사용 차이
 - 육아가구는 비육아가구에 비해 의무시간이 더 길고 재량시간이 더 짧음
 - 부모의 돌봄 시간이 주된 차이를 만들어 냄
- 자녀 연령에 따른 시간 사용 변화
 -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의 직접 돌봄 시간이 많음
 -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의 직접 돌봄 시간은 감소하나, 자녀와 함께한 맘도는 시간은 그 비율이 다소 줄기는 하나 여전히 유지됨
- 삶의 질과 긍정적 기분
 - 육아가구와 비육아가구 간에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육아가구는 자녀와 함께한 시간이 긍정적 기분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남. 비육아가구에서는 긍정적 기분을 증가시키는 삶의 요소가 분명치 않음.

연구결과 요약

- 육아가구의 맴도는 시간의
- 자녀와 함께한 시간은 평일보다 주말에 더 길게 나타남
- 자녀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위자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 있음.
- 다만, 식사, 여가 시간의 경우 행위시간, 즉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확보하는 시간은 자녀 연령이 증가하더라도 감소하지 않음.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는 작업이 중요함을 시사.
- 비육아가구에 비해 육아가구의 사회적 교제 시간이 자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연구결과 요약

- 부모의 성별에 따른 물입육아의 차이
 -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 함께한 시간은 자녀연령에 따라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경향
 - 아버지의 자녀직접돌봄, 함께한 시간 총량은 어머니에 비해 작지만, 자녀연령 변화에 크게 변화가 없음. 즉, 총량이 지속되는 경향성 발견
- 어머니의 계층별 자녀돌봄시간, 차이가 크지 않음
 - 어머니의 자녀직접돌봄시간, 함께한 시간에서 총량은 자녀연령에 따라 감소하지만, 어머니의 교육 및 소득계층 차이는 크지 않음
- 아버지의 계층별 자녀돌봄시간, 차이가 발견됨
 - 아버지의 자녀직접돌봄 및 함께한 시간에서는 아버지 교육계층에 따라 뚜렷한 차이 발견함. 교육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높은 아버지들은 자녀연령증가에도 자녀돌봄시간을 상당히 유지하는 경향이 보임

연구제언

- 이번 연구는 2019년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활용했으므로, 최근의 사회적 변화나 팬데믹의 영향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인과관계도 한계가 있어 해석 시 유의할 필요성 있음.
- 향후 연구 방향: 팬데믹 이후의 육아가구 삶의 질 변화 연구 필요- 아버지의 돌봄 참여 증가와 그에 따른 가정 내 성별 역할 변화에 대한 추가 연구
- MZ 세대라는 세대 특성과 이러한 몰입육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음.
 - 그들의 삶의 지향점과 육아의 관계모색 필요.
 - 젊은, 교육받은 아버지들이 육아와 자녀돌봄, 자녀와 함께한 시간의 의미 파악 필요.
 - 이러한 “친밀한 부모자녀관계”가 **세대관계 결집성, 성인기로의 전이**에서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 파악할 필요(ig. 이탈리아와 스페인 사회의 지연된 결혼, 불비는 등우리 현상, 그리고 초저출산 현상과 연결성에 주목)
 - 부모의 심리적, 정서적 부담과 보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포괄적인 삶의 질 개선 방안 모색

2024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발표 2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김지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2024 KICCE 제 4차 정책 토론회

삶의 질 지표를 통한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2024. 11. 8.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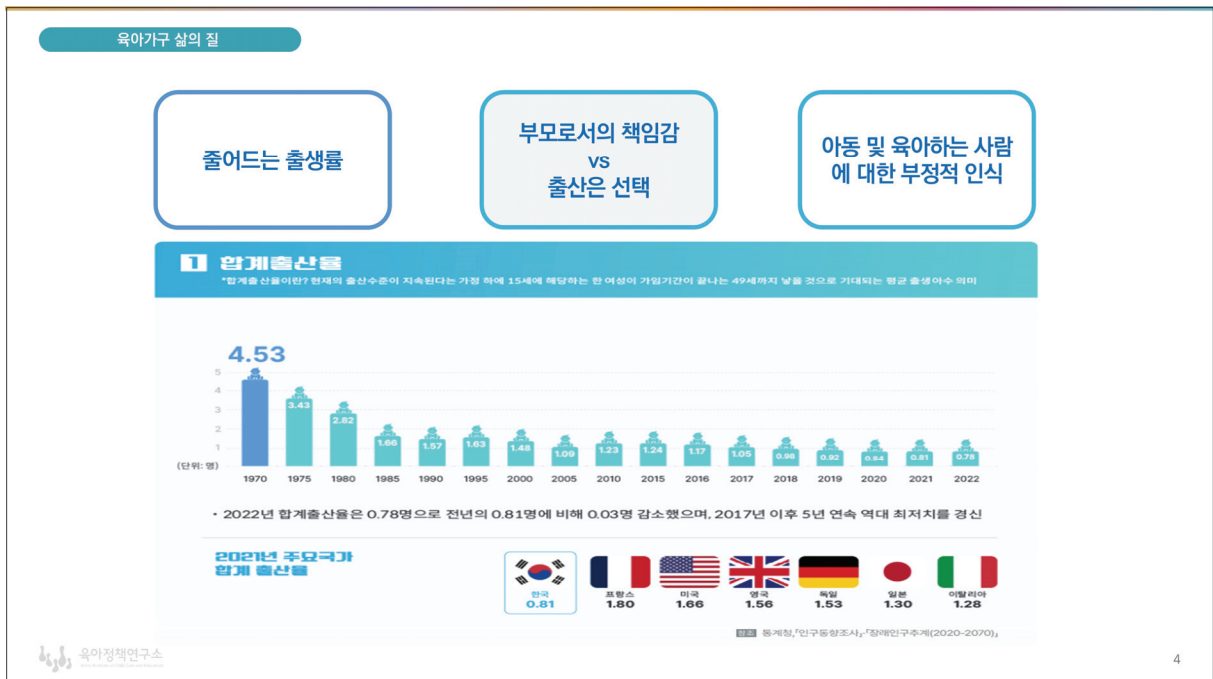
김지현 연구위원

CONTENTS

- 01 육아가구의 삶의 질
- 02 설문조사 결과
- 03 심층조사 결과
- 04 육아가구 삶의 질 위한 제고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육아가구 삶의 질

1. 육아가구 삶의 질 연구 배경과 필요성

지속되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추세

- 2024년 한국의 출생아 수는 약 23만 명, 출산율 0.72명(통계청 보도자료, 2024. 2. 28.)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여, 결혼과 출산을 계획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고, 사회구조적 원인을 파악과 해소를 통해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고자 함¹⁾.

1) 관계부처합동(2020)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육아를 하는 부모의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 영역별 육아가구의 어려움을 찾고자 함.

육아가구 삶의 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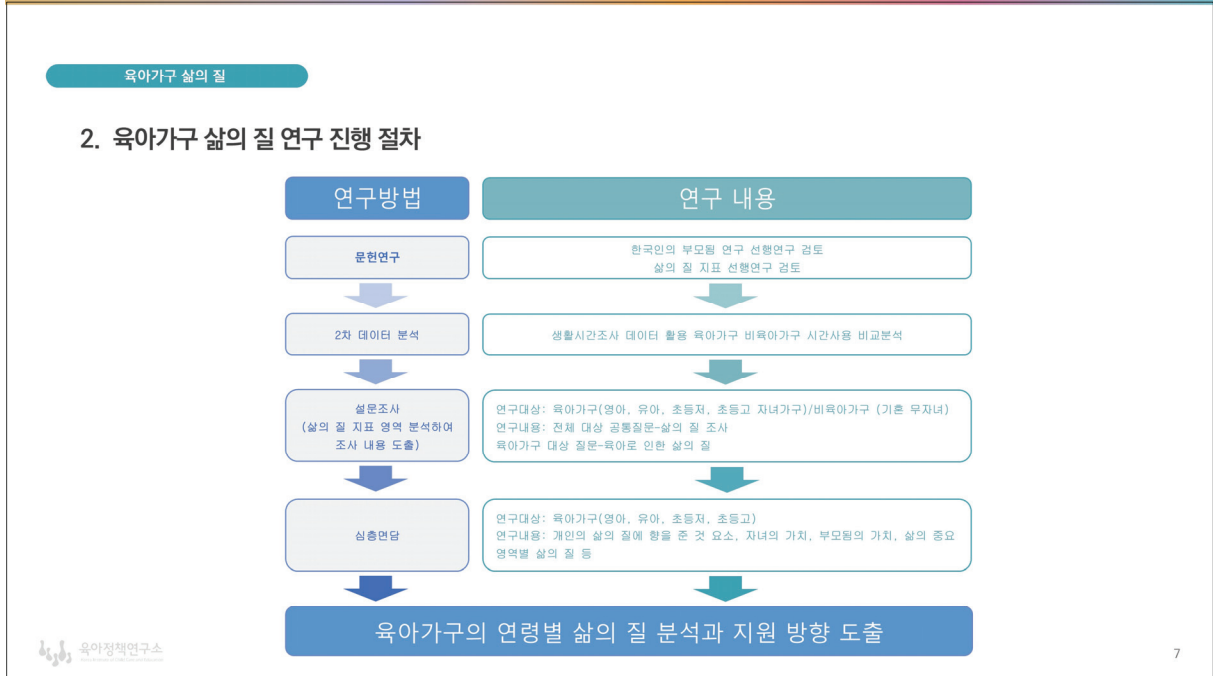
1. 육아가구 삶의 질 연구 배경과 필요성

저출생 시대의 부모됨

- 저출생 시대에 결혼과 출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만 25-49세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비율이 61.6%였던 반면 무자녀 응답자의 '자녀출산의향'은 29.7%에 불과함
 - '임신, 출산 양육이 막연히 어려울 것 같아서'가 가장 높음
-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을 크게 느낌



⇒ 저출생시대의 부모됨 가치 파악을 통해 육아를 하는 부모를 지지할 방안을 강구함



육아가구 삶의 질

1. 조사 대상

구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무자녀	사례수
부 양육자 (남성)	202	203	201	202	203	1,011
모 양육자 (여성)	200	203	201	202	207	1,013
전체	402	406	402	404	410	2,024

육아가구 표본 할당

-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첫째 자녀 기준) 부모를 지역별, 성별, 자녀연령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음.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초저(6-8세)		초고(9-11세)		전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수도권	106	106	106	106	101	101	102	101	829
광역시	40	38	40	40	41	42	40	42	323
도지역	56	56	57	57	59	58	60	59	462
전체	202	200	203	203	201	201	202	202	1,614

비육아가구 표본 할당

- 육아가구의 삶을 파악하기 위한 대조군으로 대부분의 육아가구 부모의 연령인 25-49세 인구 중 연령별 비율을 분석하여, 연령별, 지역별, 성별로 나누어 할당하여 조사함.

지역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체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남	녀	
수도권	3	3	15	15	42	41	29	29	18	19	214
광역시	1	1	6	5	14	14	14	14	7	7	83
도지역	1	3	7	9	20	21	17	17	9	9	113
전체	5	7	28	29	76	76	60	60	34	35	410

육아가구 삶의 질

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육아가구(영아, 유아, 초등)	비육아가구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삶의 질 지표	공통 영역별 삶의 질 측정용 위한 요소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삶의 의미, 행복의 중요도, 삶의 패턴 등 -삶의 역량: 신체적 건강, 정신적 스트레스 정도, 여가활동 여부 및 종류 등 -사회적 삶: 사회적 관계망, 배우자와의 가사, 양육분담, 인간관계 만족도 등 -삶의 환경: 주거환경 및 거주지역의 물리적환경, 안전, 육아친화적 환경 등 -물질적 삶: 일자리 만족도, 기업의 육아친화적 환경, 소득/소비 만족도 등			성별		맞벌이 여부		
				남성	50.0 (1,011)	맞벌이	64.5 (1,306)	
육아가구 양육현황	-돌봄인력, 기관 이용후 돌봄, 기관 이용시간, 기관 이용 만족도 등			여성	50.0 (1,013)	외벌이	30.4 (615)	
				연령		모두 일하지 않음	0.8 (16)	
부모됨 및 육아 관련 특화 질문	-결혼 및 육아에 대한 공통질문: 결혼, 이혼, 출산에 대한 일반적 인식, 자녀에 대한 가치관, 부모됨에 대한 인식, 부모역할 부담 등 부모로서 지원 정도 등 인식문항 -양육효능감, 자녀양육정서 등 -자녀 출산 후 삶의 영역변화, 삶의 질 변화 인식 등			만29세 미만	2.6 (53)	배우자 없음(유자녀 가구)	4.3 (87)	
				만30-34세	16.4 (331)	종사상의 자위		
				만35-39세	32.7 (662)	임금근로자(정규직)	62.6 (1,267)	
				만40-44세	34.0 (689)	임금근로자(비정규직/일용직)	9.5 (192)	
				만45-49세	11.8 (239)	자영업자	8.9 (180)	
				만50세 이상	2.5 (50)	무급가족종사자	1.0 (20)	
						경제활동 하지 않음	18.0 (365)	
				최종학력		본인 취업여부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2 (227)	취업중	73.0 (1,477)	
				전문대학(2-3년제) 졸업	19.3 (390)	학업중	1.5 (31)	
				대학교(4년제) 졸업	56.5 (1,143)	휴직중	9.0 (182)	
				대학원 재학 이상	13.0 (264)	미취업	16.5 (334)	

육아가구 삶의 질

3. 삶의 질의 영역 및 구성요소 분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주: 한준·최승기·이도훈·정인관·권디은(2023). 생애주기별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구축 연구. 통계개발원, 한국삶의질학회, p.74.의 모델을 기반으로 연구진이 재구성함

영역	구성요소	전반적 삶의 질 측정 요소	
		객관적 지표	주관적 지표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 삶의 만족도 · 긍정성(행복) · 부정성(근심, 우울)
	의식과 가치		· 삶의 의미 · 인생 결정 자유 · 행복의 중요도
삶의 역량	건강	· 규칙적 운동, 아침식사 유무, 정기적 건강검진	· 객관적 건강상태 (규칙적 식사, 운동, 건강검진)
	교육	· 교육	· 주관적 건강상태 · 수면의 질 · 전반적 스트레스 정도
	여가	· 여가 활용, 여가 활동 동반자	· 학업 수준 만족도 · 배움 노력
사회적 삶	가족	· 맞벌이여부 · 가사 분담 상태	· 여가생활 만족도 · 여가시간 충분도 · 여가생활 걱정
	공동체		· 가족관계 만족도 · 개인적 인간관계 만족도 · 자녀와의 관계, 자녀관련 인간관계 만족도 (육아가구만) · 가사 분담 만족도
물질적 삶	고용·임금	· 월평균 임금(배경질문) · 주당근로시간 · 직업, 종사상의 지위(배경질문)	· 계층이동-본인세대, 자식세대 · 집단별 신뢰정도 · 사회적 고립도 · 사회적 관계망
	소득·소비·자산	· 가구소득 (배경질문) · 월평균 임금	· 일자리 만족도 · 기업의 육아친화 정도 · 일가정 양립 만족도 · 육아친화적 근로환경
삶의 환경	주거	· 거주지 점유 형태 · 현 지역으로 이사 이유 (행복조사)	· 소득 소비생활 만족도 · 계층역사(주관적 사회적경제 지위) · 양육비, 교육비 부담정도(육아가구만)
	환경		· 주거주체 만족도 · 주거환경 만족도
	안전		· 생활환경 만족도 · 소음 만족도 · 녹지환경 만족도 ·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육아가구 삶의 질

4. 육아가구 삶의 질 - 내면적 삶

내면적 삶

- 주관적 웰빙 -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근심/걱정 정도
- 의식과 가치 - 삶의 의미, 인생 결정 자유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 가구	비육아 가구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내면적 삶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5.9	5.8	5.9	6.2	5.7	5.8	5.7
		행복도	6.3	6.3	6.4	6.7	6.1	6.2	6.2
		근심/걱정 정도	5.6	5.8	5.2	5.7	5.9	5.7	5.7
		우울 정도	4.5	4.6	4.0	4.3	4.7	4.8	4.6
	의식과 가치	삶의 의미	6.3	6.4	6.2	6.6	6.3	6.3	6.2
		인생 결정 자유	5.6	5.4	6.1	5.6	5.3	5.4	5.4

*음영표시셀: $p < 0.05$

내면적 삶 - 연령별 가구간 비교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도>

<우울 정도>

■ 육아가구 ■ 비육아가구 ■ 영아가구 ■ 유아가구 ■ 초등저학년 ■ 초등고학년

육아가구 삶의 질

4. 육아가구 삶의 질 - 삶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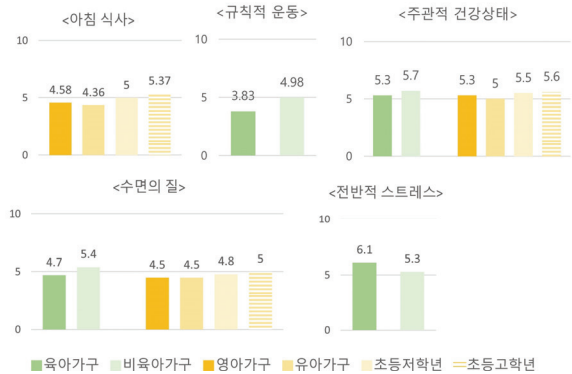
삶의 역량

- 건강 - 아침식사,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전반적 스트레스
- 교육 - 학업수준 만족도, 배움노력
- 여가 -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영아가구	유아가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건강	건강	아침식사	47.3	48.3	43.7	45.8	43.6	50.0	53.7
		규칙적 운동	40.6	38.3	49.8	35.1	35.5	40.3	42.3
		정기적 건강검진	78.2	77.4	81.5	75.1	77.3	75.9	81.2
		주관적 건강상태	5.4	5.3	5.7	5.3	5	5.5	5.6
		수면의 질	4.8	4.7	5.4	4.5	4.5	4.8	5
		전반적 스트레스	6	6.1	5.3	6.1	6.3	6.2	6
교육	교육	학업수준 만족도	6	6.1	5.8	6.2	6.2	6.1	5.8
		배움노력	5.2	5.2	5.4	5.1	4.9	5.3	5.4
여가	여가	여가생활 만족도	5.6	5.4	6.3	5.3	5.2	5.6	5.6
		여가시간 충분도	4.5	4.2	5.5	3.8	3.8	4.5	4.7

육아정책연구소
*음영표시셀: p<0.05

삶의 역량 - 건강



* 건강 중 객관적 지표인 아침식사, 규칙적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세 문항은 실천 유무(예/아니오)를 질문하여, 해당수치는 '예'에 응답한 비율임을 밝힘.

육아가구 삶의 질

4. 육아가구 삶의 질 - 삶의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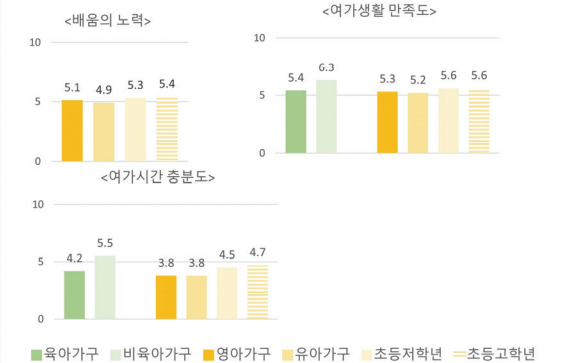
삶의 역량

- 건강 - 아침식사, 규칙적 운동, 정기적 건강검진, 주관적 건강상태, 수면의 질, 전반적 스트레스
- 교육 - 학업수준 만족도, 배움노력
- 여가 - 여가생활 만족도, 여가시간 충분도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영아가구	유아가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건강	건강	아침식사	47.3	48.3	43.7	45.8	43.6	50.0	53.7
		규칙적 운동	40.6	38.3	49.8	35.1	35.5	40.3	42.3
		정기적 건강검진	78.2	77.4	81.5	75.1	77.3	75.9	81.2
		주관적 건강상태	5.4	5.3	5.7	5.3	5	5.5	5.6
		수면의 질	4.8	4.7	5.4	4.5	4.5	4.8	5
		전반적 스트레스	6	6.1	5.3	6.1	6.3	6.2	6
교육	교육	학업수준 만족도	6	6.1	5.8	6.2	6.2	6.1	5.8
		배움노력	5.2	5.2	5.4	5.1	4.9	5.3	5.4
여가	여가	여가생활 만족도	5.6	5.4	6.3	5.3	5.2	5.6	5.6
		여가시간 충분도	4.5	4.2	5.5	3.8	3.8	4.5	4.7

육아정책연구소
*음영표시셀: p<0.05

삶의 역량 - 교육, 여가



육아가구 삶의 질

4. 육아가구 삶의 질 - 사회적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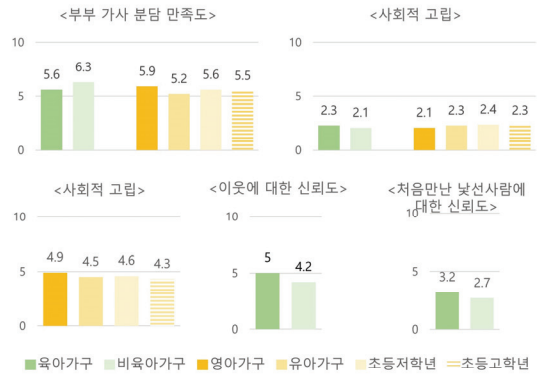
사회적 삶

- 가족 - 가족관계 만족도(평), 부부가사분담만족도
- 공동체 생활 - 사회적고립도, 인간관계 만족도, 사회에 대한 신뢰도 등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영아가구	유아가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사회적 삶	가족	가족관/연속도(평)	6.7	6.7	6.8	7.1	6.6	6.5	6.5
		부부가사분담만족도	5.7	5.6	6.3	5.9	5.2	5.6	5.5
		부부간양육분담만족도	-	5.9	-	6.1	5.6	6.0	5.9
	공동체 생활	사회적 고립도	2.2	2.3	2.1	2.1	2.3	2.4	2.3
		인간관계 만족도(평)	6.1	6.1	6	6.3	6	6	6
		사회전반에 대한 신뢰도	4.6	4.6	4.5	4.9	4.5	4.6	4.3
		가족/신체에 대한 신뢰도	7.3	7.3	7.2	7.5	7.2	7.2	7.2
		이웃에 대한 신뢰도	4.9	5	4.2	4.8	5	5.1	5
		친분있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6.4	6.4	6.3	6.6	6.4	6.3	6.3
		처음만난 낯선사람에 대한 신뢰도	3.2	3.2	2.7	3.3	3.2	3.4	3.1

*음영표시셀: p<0.05

사회적 삶 - 육아가구간의 비교



15

육아가구 삶의 질

4. 육아가구 삶의 질 - 물질적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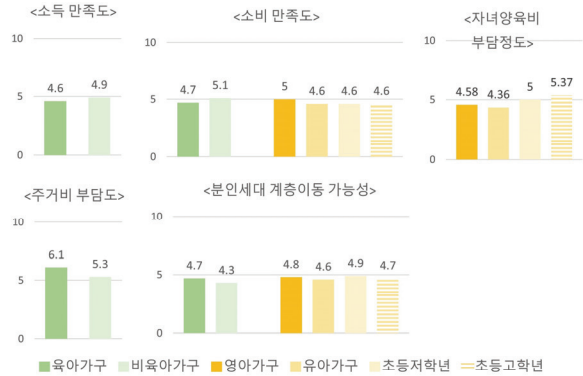
물질적 삶

- 일 - 전반적 일 만족도, 일가정 양립 만족도, 기업의 육아친화적환경
- 소비 - 소득만족도, 소비 만족도, 비용 부담도, 계층이동 가능성 등

영역	구성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가구	비육아가구	영아가구	유아가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물질적 삶	일	전반적 일 만족도	6	6	6	6	6.1	5.9	6.1
		일가정 양립 만족도	5.9	5.8	6	5.9	5.7	5.6	6
		육아친화적 환경	4.7	4.8	4.4	5	4.9	4.6	4.5
	소비	소득 만족도	4.6	4.6	4.9	4.9	4.5	4.5	4.4
		소비 만족도	4.8	4.7	5.1	5.0	4.6	4.6	4.6
		자녀양육비 부담정도	-	6.1	-	5.9	5.9	6.5	6.6
		주거비 부담도	6.4	6.5	5.9	6.5	6.4	6.7	6.5
		본인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4.7	4.7	4.3	4.8	4.6	4.9	4.7
		자식세대 계층이동 가능성	4.3	4.5	3.5	4.4	4.4	4.7	4.5

*음영표시셀: p<0.05

물질적 삶 - 자녀연령별 가구 비교



16

육아가구 삶의 질

4. 육아가구 삶의 질 - 삶의 환경

삶의 환경

- 주거 - 거주주택 만족도
- 환경 - 주거환경 만족도, 생활환경 만족도
- 소비 - 동네의 전반적 안전, 자녀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영역	구성 요소	측정요소	전체 평균	육아 가구	비육아 가구	영아 가구	유아 가구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삶의 환경	주거	현재 거주주택 상태 만족도	5.8	5.8	5.8	5.9	5.9	5.7	5.7
	환경	주거환경 만족도 (교통, 문화체육, 편의, 의료 시설)	5.9	5.9	5.9	6	5.8	5.9	6
		주변환경 만족도 (보육교육관련 시설)	6.0	6.2	5.5	6.2	6.1	6.2	6.2
		생활환경 만족도 (공기질, 소음, 녹지공원 등)	5.9	5.9	5.9	5.8	5.8	5.9	6
		지역사회 내 양육환경 및 문화에 대한 인식		2.7	-	2.7	2.7	2.7	2.7
	안전	동네의 전반적 안전	6.5	6.5	6.6	6.5	6.5	6.4	6.6
자녀 키우기에 안전한 정도		5.4	5.5	5.1	5.6	5.3	5.5	5.4	

삶의 환경- 육아/비육아 가구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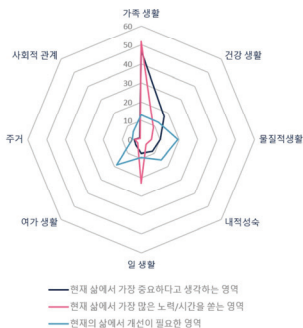


*음영표시셀: p<0.05



육아가구 삶의 질

5. 육아가구 삶의 영역별 중요도, 시간 사용, 개선필요 영역



중요도-시간/노력사용-개선필요

- 육아가구의 삶의 영역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1순위로 50% 가까이 가족생활, 20%정도가 건강생활을 선택
- 현재 삶에서 가장 많은 시간/노력을 쏟는 영역은 50% 이상이 가족생활, 20% 이상이 일생활로 나타나 매우 편중되어 있음.
- 하지만 가장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는 20%가 여가생활, 20%가 물질적 생활, 그 다음으로 내적성숙, 건강생활, 가족생활 등을 꼽음.

=> 육아를 하는 삶 속에서 가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생활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으나, 건강생활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가생활 및 물질적 생활의 개선을 가장 원하고 있음.





2024 KICCE 제 4차 정책 토론회 -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

육아가구 삶의 질 심층면담 조사

육아가구 삶의 질

1. 조사 대상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전체
모	부	모	부	모	부	모	부	
5	5	4	4	5	5	5	5	38

육아가구 표본 할당

-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첫째 자녀 기준) 부모를 지역별, 성별, 자녀연령별로 할당하여 조사하였음.

구분	영아(0-2세)		유아(3-5세)		초저(6-8세)		초고(9-11세)		전체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수도권	106	106	106	106	101	101	102	101	829
광역시	40	38	40	40	41	42	40	42	323
도지역	56	56	57	57	59	58	60	59	462
전체	202	200	203	203	201	201	202	202	1,614

2. 조사 내용

구분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내용	
		공통	자녀 연령별
육아가구 자녀연령별	영아 부모	- 개인의 삶의 질-육아 전후 비교, 영향을 준 것 요소 - 자녀의 가치, 부모됨의 가치, 부모로서 해주어야 하는 책임에 대한 생각, 이러한 가치가 삶의 질에 주는 영향 - 삶의 중요 영역별 삶의 질 (일, 육아, 여가, 사회적 관계 등)	부모 양육분담 가족, 사회적 지지
	유아 부모	- 삶의 중요 영역별 삶의 질 (일, 육아, 여가, 사회적 관계 등) - 육아를 하면서 변화된/확장된 삶의 영역과 삶의 질 등	사회적 관계 확장
	초등저 부모	- (부/모 따로 질문할 부분 따로 작성 가능)	초등 전이 방과후 돌봄 공백
	초등고 부모	- (부/모 따로 질문할 부분 따로 작성 가능)	학업 지원 자녀와의 관계 형성

육아가구 삶의 질

1. 행복한 순간/ 우울한 순간과 삶의 질

행복한 순간

- 자녀 존재자체로 오는 행복감
"또 아기 낳고 처음 느꼈던 감정이 이렇게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처음 느껴봐가지고, 그럴 때는 진짜 처음 맞본 행복인 것 같아요.(영아 모1)"
- 아이의 성장과 변화로부터 오는 행복
- 가족이라는 느낌,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
- 개인의 시간을 누릴 때
- 삶의 균형이 느껴질 때

우울한 순간

- 양육 어려움이 체감될 때
- 사회적 변화(직장, 친구)가 느껴질 때
- 자녀로 인한 어려움이 느껴질 때
- 양육분담으로 갈등을 겪을 때
- 부부가 함께 하지 못하는 시간 때문에
- 외부 요인으로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할 때
- 양육효능감이 떨어질 때
- 금전적 부족감을 느낄 때

육아정책연구소 21

육아가구 삶의 질

2. 삶의 질에 주는 영향

긍정적 영향 요소

- 육아의 부담을 줄고 개인 시간을 누릴 때
- 자녀와의 유대, 소통 체감
- 부부/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확보
- 부부의 적절한 양육 분담
- 일과 양육, 삶의 균형
- 경제적 안정과 충족감
- 자녀로 인한 관계의 변화
"저희 양가 부모님들이 손주를 너무 예뻐해서서, 제가 그런 게 효도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가 없었으면 어쩔뻔 했을까라는 생각(영아 부4)"
- 부모로서 성숙을 경험함

부정적 영향 요소

- 육아로 인한 부담감
- 저는 그냥 삶의 질로 봤을 때는 조금 떨어진 건 있어요.(영아 모2)
- 자기시간의 부족
- 경제적 부담감
- 자기발전을 위한 고민
- 부모 자신을 위한 소비가 줄어든 점
- 삶의 중심이 자녀, 가족에게 이동
- 자기정체성의 변화
- 저도 결혼 전에는 저만 위해서 맨날 생활하고 살았다면, 요즘은...아이 위주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초저 모2)

육아정책연구소 22

육아가구 삶의 질

3. 육아가구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삶의 영역 - 일 영역

일 생활과 삶의 질

■ 육아로 인한 휴직과 복직과 이직

"저희 애가 태어났을 때 조리원에 있을 때, 그때도 프로젝트 때문에, 애가 조리원에 있는데 프로젝트 때문에 출장 가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회사에 오게 되고.(초저 부2)"

■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퇴직, 이직이 어려움

"아기가 태어나니까 뭔가 모를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전보다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책임지어야 할 존재가 있으니까 (영아 모3)"

■ 자녀로 인한 휴직/휴가를 쓰면서 봐야 하는 눈치

"자녀를 두고 부모가 되면서 일이나... 변화가 심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애가 입원했을 때 막 사람들 눈치 보면서 휴가 내야 되고 이런 거? 그럴 때 좀 그랬죠.(초저 부1)"

■ 일과 육아 중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

"저는 한 2, 3년 정도 전에 승진을 미뤘다고 해야 되나? 연봉이 올라가면서 일을 조금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으면서 조금 일찍 유도리 있게 퇴근할 수 있는지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승진을 아예 포기를 했었어요. (유아 부2)"

"보통 제가 있는 직장에서만 해도 약간의 갈림길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더 치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워라밸 쪽으로 갈 것이냐, 육아를 신경 쓰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 길이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육아 쪽을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유아 부4)"

■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는 어머니들

"거의 경력단절이 한 10년 정도 돼서 경단녀로 취업을 하게 된 경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렇게 대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초고 모4)"

육아가구 삶의 질

4. 자녀가 생긴 후 가장 행복한 순간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처음 모유수유 했을 때 쌍둥이라 둘이 잘 놀 때	내가 아플 때 밴드 붙여줄 때 엄마가 최고야 할 때 (웃는게 예뻐~) 점차대화가 되고 나의 마음을 알아 줄 때 동생 예뻐해 줄 때	처음 '엄마' 했을 때(33개월) 쌍둥이라 작게 낳았지만 잘 크고 있는 자체가 행복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입학식 때	말하기 시작할 때 엄마가 젤 좋다고 할 때 아이 어려울 때 아이가 성장했다고 느낄 때
아버지	아빠라는 말 들었을 때(2) 배필이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왔던 모습	아이태어 난 이후로 다-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올 때 2018.3.15.(아이생일) 아이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아이가 성취를 이룰 때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매 순간 행복함	서로의 마음을 알아줄 때. 하루하루가 행복함

“엄마/아빠를 처음 불렀을 때, 아이의 존재 자체가 행복, 자녀 성장을 지켜볼 때,

육아가구 삶의 질

5. 부모가 된 후의 삶의 변화 - 부모가 된다는 것

	영아	유아	초등저	초등고
어머니	성숙해질 기회 선택 받은 일 누군가를 온전히 책임진다는 것 이해심이 넓어지는 것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것	책임감(3) 육아로 인해 성숙한 어른이 되는 과정	나를 희생해서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뒷받침해주는 존재 책임감이나 희생 책임감-내가 부여 받은 일	내 삶이 한 단계 성장하는 것 (배려, 타협, 인내 등) 어른이 되어가는 힘든 삶 희생과 책임감 이해 폭이 넓어지는 성장
아버지	어른이 된다는 것 가족관계를 더 완만하게 그리고 다질 수 있는 기회 분위기가 화목해짐	성장한 느낌 어른이 된 거 같다	항상 옆에 있어주는 사람 책임을 지는 일	나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

인간으로서 성숙할 수 있는 기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것, 책임감, 부모님을 이해하는 계기, 온전히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존재

육아가구 삶의 질

6. 저출생과 부모됨에 대하여

저출생 현상과 가치관

▪ 희생하지 않으려는 가치관의 문제

"근데 더군다나 거기에 사회적으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애를 낳으면 내 자신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되게 손해를 봐야 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되니까 그걸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겠죠"

▪ 이제 출산은 강요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임

"저도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주변에도 보면 10명이 결혼했다 그러면 5명이 애를 안 낳았을 정도로 애를 안 갖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개네들의 마인드를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아기 안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제가 봐도 삶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월등히 좋긴 한데, 애를 키워기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또 다른 느낌도 있다 (초저 부3)"

▪ 사회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사회적 문제

"근본적으로는 집값과 물가 그리고 연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출생을 했을 때 내 삶을 조금이라도 희망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다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고 부4)"

▪ 개인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육아의 기쁨이 큼

"한편으로 이해가지만 또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 키웠을 때 또 그 행복감이 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또 그런 행복감이 있거든요. 그것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또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초저 모1)"

육아가구 삶의 질

7. 정책에 대한 의견

- 양육을 직접 할 수 있는 시간지원제도를 원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부족과 육아지원제도 쓸 수 있는 직장문화 마련 필요
- 가까운 거리에 질 높은 보육기관이 많고, 퇴근시간까지 맡아줄 수 있다면
- 아이돌봄 대기가 길어 인력확충이 된다면
- 학교 돌봄에서는 교육도 함께 병행된다면
-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함께 지원해주어서 학원에 갈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

- 1) 양육시간 지원
- 2) 비용지원 정책
- 3) 돌봄 서비스 지원정책
- 4) 주거지원 정책
- 5) 교육정책(공교육 강화 등)
- 6) 지역사회 환경(놀이터, 공원 등)
- 7) 양육 친화적인 문화

- 영유아- 부모급여 1년 차는 좋으나, 지원이 주는 느낌
- 초등- 초등 이후 교육비 증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나 영아부모에게만 지원이 물리는 느낌.. 예체능 교육에도 지원이 있었으면
- 자녀를 직접 키우려니 금전적 혜택이 좋고, 자녀양육에 돈이 많이 드니 주거마련이 늦어지고, 그러니 주거마련이 늦어지고...
- 주거가 해결되어야 양육에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
- 지역사회에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 육아휴직, 육아지원정책 등이 많은 사람이 낸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나, 그렇지 못한
- 무자녀 직원들의 반대로 지원제도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음.

육아정책연구소 27

2024 KICCE 제 4차 정책 토론회 -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방안

육아가구 삶의 질 위한 제고방안

육아가구 삶의 질

1. 기본 방향

- 기본방향 1. 변화하는 육아정책에 따른 육아가구의 정책에 인식과 선호양육형태를 고려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 기본방향 2. 육아가구의 삶의 질 현황에 근거하여, 육아를 하는 부모 개인의 삶의 개선 영역을 지원한다.
- 기본방향 3. 육아하는 가구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고, 육아하지 않는 가구도 육아를 지지하는 사회전반의 변화와 배려를 도모한다.

육아가구 삶의 질

2. 영역별 육아가구제안

영유아 육아가구 지원방안

삶의 영역	연구결과	정책 제안
건강 및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 육아가구의 경우 규칙적 운동을 하는 비율(35%), 건강검진 비율(75%)이 가장 낮음 규칙적 운동' 여성(31.1%)이 남성(45.4%)보다, 휴직중이나 미취업인 경우(30.8%) 취업중/학업중(40.8%)보다 규칙적 운동 비율 낮음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의 가구의 건강검진 비율이 70% 이하로 낮음 영유아의 여가시간총분도가 3.8점으로 가장 낮으나, 돌봄 도움 인력이 있을 경우, 여가생 활만족도는 더 높게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아(만2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대상으 로 요가, 필라테스, 헬스 등 건강지원 프로그램 을 이용할 수 있는 패스 발행 보건소 진행시 건강상담포함 주체: 보건소, 주민센터
주관적 건강/스트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 영유아기 육아 중 1시간의 운동이 삶의 질을 증진시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에 비해 전반적, 가정생활, 가족 내 스트레스, 친구·지인 스트레스 가 모두 높음(직장스트레스는 차이없음) 우울정도, 근심걱정 등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높음. 삶의 만족도, 행복도는 여성 이 남성보다 낮음 (면담) 양육 초기 육아책임에 대한 부모간 인식차이 및 양육 부담으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부부 및 영아자녀양육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지원상담서비스 지원 양육자 스트레스 및 양육인식차이로 인한 부부관계 향상 프로그램 주체: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가구 삶의 질

2. 자녀 연령별 육아가구제안

초등저학년 육아가구 지원방안

삶의 영역	연구결과	정책 제안
가족 영역 일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시간조사) 초저 시기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한 시간, 자녀를 돌보는 시간의 그룹별 편차 큼. 초등고학년에서 가구소득/교육수준 등으로 인한 돌봄의 차이가 생기는 중간단계임 (조사) 여가시간 중 시간이 나면 하고 싶은 활동 중 '여행나들이'의 비율이 50%이상임 (면담) 자녀의 가족과의 시간 확대와 부모의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충족을 위해 가족단위 활동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가구 대상 "육아가구 문화패스" - 자녀동반 예약시, 숙박시설 할인, 문화체육활동 예약 할인 제공
교육/돌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저학년의 평균 학교 이용시간은 3시간(초등학교 고학년은 2시간 36분)으로, 영유아 기관 평균 이용시간인 4시간 54분 보다 2시간 이상 짧음. (초등저) 사교육 이용 57.5%, 학교 내 돌봄 이용 60.0% (초등고) 사교육 이용 70.8%, 학교 내 돌봄 이용 3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돌봄의 중요성 방향에 따라 '출산초기 육아휴직과 같이 초등저학년 시기의 돌봄, 초등방학기간의 돌봄공백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함 - 초등방학휴가, 초등돌봄 재택근무 등 시기 특수적 지원제도 마련 및 활용확대
소득/소비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가구가 소득소비만족도 낮고, 자신을 위한 소비생활만족도 낮음 자녀양육비, 자녀교육비 부담이 초등저학년부터 높아져, 초고의 경우 가장 높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녀교육비 부담 더 높음. (면담) 돈은 아이들이 클 수록 더 드는데 지원은 태어나는 아이들 위주임. 교육비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수요에 맞춘 공급이 제공될 수 있도록 초등저학년 대상 방과후 수업 지원확대 - 늘봄학교 지원 확대 등을 고려하여, 방과후 수업을 원하는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공간 및 수업 인프라 확대

육아가구 삶의 질

2. 자녀 연령별 육아가구제안

초등고학년 육아가구 지원방안

삶의 영역	연구결과	정책 제안
소득/소비 영역 (양육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담) 현재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세대의 경우 최근 늘고 있는 영아기 부모급여 등 비용지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이와 함께 사교육비 등 교육비지출증가가 늘어나면서 교육비지원에 대한 요구 높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수당 연령 증대 (진행중)
사회적 영역 (사회적 고립도 및 사회적 관계망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가구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고립도가 높으며, 연령 높고, 미취업일 경우 높아짐 학업수준에 대한 만족도도 낮음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육아가구가 더 적음 	
일 영역/사회적 영역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초등고 어머니들의 경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많았고, 사회적 고립도 및 높아지는 교육비 등으로 재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왜 여자만 회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막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초고모3)" - 지자체 차원에서 '여성의 경력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조례(경기도)',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양시) 등을 제정하고 여성의 육아경력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경력 인정으로 인한 일자리 확대 - 돌봄경력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양육으로 공백이 생긴 부모에 대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양성

육아가구 삶의 질

3. 부모됨 긍정성과 양육친화적 문화인식확대

구분	지원 수요	인식확대
부모됨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체는 힘들지만 너무나 행복한, 온전한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는 일. ㉡ 미디어에서의 육아와 훈육 등의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 되었으나, 부정적인 측면, 힘든 측면이 부각되는 측면이 있음 	미디어를 통한 육아에 대한 긍정적 상황에 대한 지속적 노출 필요
자녀 출산으로 인한 내적 성장,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출산으로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원가족과의 관계 회복한 경험, 누군가를 책임져야하는 존재로서 성장해가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경험 	내적 성장 경험, 가족관계 개선 경험 공유
높은 공동체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타인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안전인식' 부분에 대해 육아가구가 비육아가구보다 높은 인식정도를 나타냄 ㉡ 주거환경으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인식' 부분도 비육아가구가 더 낮게 나타남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막연한 두려움 등을 가지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함
육아로 인한 경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긍정적 정서가 높고, 육아가구의 경우 여행 및 문화생활에 대한 참여가 높음 	육아가구 대상 문화·관광활동 확대
육아지원정책활성화 될 수 있는 기업사회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육아가구의 항의 등으로 인해 육아지원 제도의 활용에 제약이 있거나 제도가 없어지기도 함 ㉡ 육아휴직을 활용한 남성 대상 불이익 분위기가 존재함 	지속적인 기업내 문화인식개선 필요하며 제도를 통한 인식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2024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토론

유재언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선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아름 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토론 1

육아가구의 삶의 질 되새기기

유재언 교수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 연구 의의

-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 주목) 비양육가구와 비교해서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함
- (광의의 육아) 돌봄 외 일상생활 전반으로 육아가구 삶의 영역, 내용 확장함
- (자녀 연령대별 차이) 육아가구도 자녀의 연령대를 영유아기로 한정하지 않고,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확대. 그동안 저출생정책, 돌봄정책에서 지원이 적었던 초등학교 고학년 가구의 상황도 파악함
- (부모 성별 차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돌봄, 자녀와 함께한 시간 분석하여 부모 모두 육아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일깨워줌
- (육아의 양면성) 육아의 어려움에 비해 간과되던 육아의 긍정적인 측면도 조명함
- (거시적인 방향성 제시)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라는 궁극적인 방향성, 영역, 연령대별 방안 제시

2. 주요 결과

- (생활시간분석) 육아가구 의무시간 길고, 개인유지, 재량시간 짧음. 특히 평일보다 토·일요일 차이 컸고,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큰 차이 남. 자녀 연령대별로 봤을 때는 만0~6세 영유아기 때 이러한 경향성 더 확연함(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줄어듦). 시간 부족, 압박은 줄어들어야 할 것임. 한편, 돌봄은 고된 일이긴 한데, 자녀와 함께한 식사, 자녀를 동반한 교제, 자녀와 함께한 여가는 긍정적 기분의 경험일 수 있음. 저학력 및 저소득 가정에서의 육아에 대한 지원은 영유아기에 한정되지 않고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필요
- (삶의 질 지표) 육아가구는 삶에 대한 만족, 행복, 아침식사, 공동체생활(이웃, 낯선 사람에 대한 신뢰도), 주변환경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임. 반면, 비육아가구는 자유로움, 규칙적인 운동, 수면의 질, 낮은 스트레스, 여가생활(만족도, 충분도), 소득, 소비 만족도 높음, 낮은 주거비 부담 측면에서 긍정적임

3. 시사점

- (자녀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지원) 자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라 자녀를 가졌을 때 다른 효용이 있어야 출산을 선택.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긍정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 확산. 무조건적인 돌봄의 사회화보다는 부모의 주체성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기조 필요(예: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 (돌봄, 경제, 주거 지원 계속) 과도한 돌봄시간, 낮은 소득과 높은 소비, 주거비 부담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계속되어야 함
- (부모 개인의 여가와 가족여가 투트랙 지원) 영유아를 둔 부모의 개인 여가 시간 확보 방안, 영유아·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여가 시간, 기회, 비용, 편의성 지원
- (취약계층)
 - (아버지) 교육수준이 낮을 경우(경제력이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소득도 낮을 가능성 큼) 자녀를 돌보거나 함께한 시간이 적어서 이들에게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할 필요 있음
 - (어머니) 자녀를 돌보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낮아질 수도 있고, 학력과 가계소득이 낮기 때문에 돌봄을 선택할 수도 있어서 정확한 인과관계 규명은 어렵겠지만, 돌봄을 시장화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가계소득수준 차이 비교했을 때). 자녀와 함께한 시간도 영유아기, 초등고학년 때 오히려 낮음. 이들에 대해서는 돌봄의 사회화, 함께하는 시간 확보를 위한 지원 집중되어야 함
 - (미혼 남녀) 가장 취약계층은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아닌 30대 중반 이상의 미혼 남녀일 수 있음
- (비육아가구에 대한 지원) 지역사회, 공동체에서 소외, 고립되기 쉬운 비육아가구의 활동에 대한 지원. 특히 육아와 관련된 직·간접적인 경험, 관심, 인식 제고를 위한 기회 제공

토론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조선미 부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저출생 시대의 부모됨과 자녀양육 경험, 그리고 삶의 질 문제

- 정부는 2024년 6월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함께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①일가정양립, ②양육, ③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의 총력을 표명하였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6.19.).
 - 그 세부내용으로 “필요한 시기 충분한 육아시간의 지원(육아휴직 확대 및 사용 유연화 등)”, “0~11세 유아동 시기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돌봄환경 조성(틈새돌봄, 보육 및 늘봄 프로그램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직장 어린이집 확산 등)”, “결혼·출산·양육의 선택에 대한 이점 강화(주택 지원, 소득/세액공제, 난임지원 강화 등)”을 제시하였음.
- 6월 대책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실수요자인 육아가구의 어려움 해소와 지원 강화로 요약됨.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방안을 경험적 자료로 분석한 두 연구는 돌봄시간 분석, 삶의 질의 영역별 분석, 육아가구 심층면담 등을 토대로 향후 저출생 정책방향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보임.
 - 첫 번째 발표는 육아가구의 생활시간을 ‘직접돌봄시간’과 ‘돌봄동반시간(땀도는 돌봄 시간)’을 구분하고, 자녀 직접돌봄시간 외에도 식사, 교제, 여가 등 일상생활에서 자녀와 함께 한 시간을 중심으로 육아가구의 돌봄 양상을 살펴보았음.
 - 두 번째 발표는 삶의 질 지표를 ‘내면적 삶(삶의 만족도, 긍정/부정정서)’, ‘삶의 역량(여가, 건강, 교육)’, ‘사회적 삶(가족, 자녀, 공동체)’, ‘물질적 삶(일, 소득)’, ‘삶의 환경(주거, 안전, 환경)’로 나누고, 육아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 미치는 주요 요인과 정책지원 방안을 모색하였음.
- ‘부모됨’의 경험은 자녀양육을 통해 유대감과 상호의존을 형성하며 성숙해가는 유의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 오늘날 일터를 비롯한 많은 사회조직 원리가 독립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정하지만, 돌봄은 주체와 객체를 분리할 수 없는 상호의존 속에서 성장과 책임을 형성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님. 우리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돌봄과 가족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의 근본적 성찰을 필요로 함.

- 본 토론문은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을 모색한 두 연구를 종합하여, 저출생 요인 분석과 정책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음.

2.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성평등한 자녀돌봄의 재구성 필요

- 두 연구결과로부터 자녀돌봄에 대한 성별화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음. 따라서 육아와 부모됨 과정 속에 나타나는 삶의 질 문제 또한 성 격차가 나타날 것임을 시사함. 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여성에게 임신·출산, 육아 등 가족구성의 선택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생애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보다 성평등한 방식의 돌봄 재구성이 필요함.
 - 첫 번째 연구는 자녀돌봄이 물리적/직접적인 육아 외에도 여가, 교육,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자녀와 동반하고 교류하는 공유시간의 확대가 행복한 육아의 관건임을 보여줌. 분석결과에서 ‘맘도는 돌봄 시간(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육아가구의 긍정적 기분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음.
 - 한편 선행연구에서는 육아참여 방식에 대한 성별차이가 보고된 적 있음. 곧 여성은 더 직접적/물리적인 돌봄(더 일상적이고 노동중심적인 돌봄)에 개입하지만, 남성은 여가와 결합되는 유연한 방식의 돌봄(자녀와의 레크레이션 등)이나 육아시 여성이 동반하는 등 돌봄참여 방식에 대한 성별화가 나타났음(Craig, 2006). 전자는 좀 더 “노동”에 가깝고 일가정양립의 부담을 강화하는 돌봄이며, 후자는 좀 더 정서적 유대와 삶의 만족과 관련된 돌봄으로서 의미를 가짐. 동 연구결과에서도 아버지는 자녀와 함께한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직접돌봄시간은 여성에 비해 현저히 짧은 양상이 나타났음.
- 두 번째 연구에서는 육아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소득, 일자리, 주거 등 물질적 요건의 지원 강화가 중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음. 저출생 대응을 위한 다수 정책지원은 주거, 소득 등 가족구성을 위한 안정적 생애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음. 이때 출산과 육아의 전제조건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성별차이를 고려할 경우 육아가구가 가진 정책수요를 더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김은지 외(2019) 등의 연구는 청년세대의 자녀출산에 대한 전제조건에서 성별 차이를 제시한 바 있음. 동 연구에서 남성은 자녀를 갖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경제적 준비, 안정적 일자리 및 주택과 같은 물질적 조건을 선택했으나, 여성들은 파트너의 적극적인 가사/육아 분담, 파트너의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활용 등 성평등한 일과 돌봄을 충족을 중요한 요건으로 선택한 바 있음.
 - 특히 청년세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전망에 대한 지향이 나타났음(김은지 외, 2019), 여성은 일과 가정 사이에서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자신이 생애전망에서 가족구성의 선택이 곧 일에 대한 차별적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출산 등 가족구성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됨.

- 실제로 첫 번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자녀돌봄 몰입 수준은 계층화되어 있어 교육수준 및 소득이 높을수록 더 자녀돌봄시간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반면, 어머니는 계층과 관계없이 자녀돌봄 수행하는 경향을 발견됨. 즉, 육아가구의 여성은 소득조건외 강화 이상으로 성평등한 돌봄부담이 삶의 질 개선 요건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종합하면, 부모됨과 육아의 경험이 청년세대가 지향하는 일과 가족에 대한 성평등한 생애전망의 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곧 가족구성의 선택이 청년 혹은 청년여성에게 일과 가족의 선택에 대한 불평등한 결과를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다양한 가족구성 및 돌봄공백 지원 필요

○ 두 번째 연구의 주장과 같이 육아를 지지하는 사회전반 배려가 필요하며, 저출생 해소를 위해 보다 다양한 방식의 가족구성 지원과 돌봄공백 해소로 양질의 가족생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출산과 돌봄 지원은 아직까지 가족제도 중심으로 나타남. 예를 들어, 덩크족(무자녀부부) 증가와 같이 결혼과 출산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있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한 지원(예: 신혼부부 주택지원 등)이 주가 되고, 성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난임지원도 아직까지 기혼부부가 주가 되는 등 혼인 등 가족제도의 연결고리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
- 제도화된 가족구성을 넘어 다양한 가족의 모습과 파트너십 속에서도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면 가족구성에 대한 선택이 보다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선택으로 나아갈 것으로 판단됨.

○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일과 삶, 돌봄의 생활양식을 반영한 지원은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의 중요한 정책 방향임.

- 우리나라 보육시설 이용률¹⁾은 2023년 기준 1세 91.8%, 2세 96.7% 등 영아 단계에서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으나, 여전히 초등돌봄 시기에는 상당 부분 돌봄공백이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원인이 되기도 함(한성민, 2021).
- 돌봄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최근 민간돌봄서비스 수요 증가 사유와 같이 자녀의 성장과 정서적 충족을 위해 학습·교육, 놀이돌봄, 안전 문제를 통합한 맞춤형 돌봄지원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조선미 외, 2022). 또한 부모의 일자리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긴급 돌봄, 틈새 돌봄 등 유연한 돌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확대 등 일과 돌봄, 삶을 시공간적으로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1) 지표누리, 저출생 통계지표(안), 보육시설 이용률, 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jsessionid=H01pF1vcKdYQ65laOmdk_TLXO88Q4zjBhCZzorTU.node11?clasCd=12&idxCd=H0020 (최종 접속일: 2024.11.05.)

- 육아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변화된 일과 가족, 생활 양상 속에서 나타난 부모의 다양한 욕구와 일상 특성을 반영하여 돌봄 공백을 유연하게 해소할 수 있는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마치며

- 마지막으로 저출생 요인 진단 과정에서 '육아'와 '부모됨'과 관련하여 청년세대의 양면적 갈등과 성별화된 경험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곧 결혼, 임신/출산 등 가족구성에 대한 선택에 대한 정책당사자인 청년과 육아가구, 여성 등의 삶과 목소리를 귀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결혼, 출산/육아 등 가족구성을 선택하지 않으려는 청년층의 증가는 개인주의 확산 또는 자기 희생 기피 등 가치관 변화의 요인도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청년세대가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 생애전망을 자녀에게 되물림될 것을 우려하는 '이타적 감각'에 의한 선택 또한 경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저출생 문제의 해법으로, 이와 같은 돌봄과 가족구성을 둘러싼 성불평등한 경험과 부정적 생애전망에 대한 인식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임.
- 두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요건을 발견함으로써, 행복한 가족생활과 양육환경의 조성 방안을 더욱 폭넓게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4.6.19.).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 김은지, 송효진, 배호중, 선보영, 최진희, 황정미. (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선미. (2022.12.15.). 소셜 빅데이터를 이용한 민간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수요 및 이슈 발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시스템 분석리포트(22-7).
- 한성민. (2021). 여성 경제활동 증가에 대응한 초등 돌봄 체계 개선방안. KDI FOCUS, (107).
- Craig, Lyn. (2006). Does Father Care Mean Fathers Share? A Comparison of How Mothers and Fathers in Intact Families Spend Time with Children. *Gender & Society*, 20:259-81.

토론 3

육아가구의 삶의 질 제고 방안

정아름 과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돌봄정책조정과)

1. 밀레니얼 세대와 몰입육아

대한민국은 초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다. 불과 50년 사이에 출생아수가 1/5 수준으로 급감하여 2021년 0~4세 인구는 165만명으로 북한(170만명)보다도 적었고, 11년째 OECD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선 결혼을 하지 않거나 늦은 나이에 결혼하며¹⁾, 결혼을 하더라도 덜 낳고, 늦게 낳고, 낳지 않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으며²⁾, 전 소득계층에서 출산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수행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61%는 결혼의향이 있고, 경제적 조건 개선남성, 일·가정 양립 가능여성시 혼과 출산 의향은 더 높아질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상적 자녀수도 1.8명으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한국의 밀레니얼 세대(1980년~1990년대 초반)의 특성과 최근 몰입육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밀레니얼 세대는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고도 성장기, IMF 외환위기,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청년실업,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 등을 경험하여 미래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불안감이 높다. 사회적으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전을 경험하며 정보의 빠른 습득과 공유 및 온라인을 통한 자기 표현에 능숙하며, 개인의 삶과 가치관을 중시하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성평등과 같은 이슈에도 관심이 많으며 여행, 공연 등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소비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대학 진학률이 최대로 높은 세대로 매우 경쟁적인 교육 환경을 경험한 세대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는 소위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세대는 출산과 육아에 있어서도 이전 세대와 구별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바로 몰입육아(Intensive Parenting)가 그 특성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더하여,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지적인 발달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1) 혼인인수 : ('13) 32.3 → ('23) 19.4만 건 / 혼인연령 : ('93) 남28.09세, 여25.01세 → ('23) 남33.9세, 여31.45세

2) 첫째 출산연령 : ('93) 26.23세 → ('23) 32.84세 /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율 : ('10) 4.4% → ('20) 8.8%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모의 개인적인 시간이나 취미활동 보다는 자녀와의 상호 작용, 문화적 경험, 학습 활동 등 자녀의 필요에 중심을 둔 생활 방식을 선호한다. 과거 ‘자기 밥그릇은 자기 고 태어난다’는 옛말은 이제 효용성이 다했다고 믿으며, 자녀의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정의 가용한 자원을 육아에 투입하는 형태다. 몰입 육아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미국과 유럽에서 진행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흔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SNS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가 확대되고, 온라인 마케팅의 대중화, 인플루언서의 등장으로 이런 몰입육아의 형태가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로 인해 자녀를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없으면 낳지 않는 것이 낳다는 인식이 사회에 공유되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압박과 커리어 사이에서 출산을 지연하거나 포기하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 육아가구의 생활시간 분석 및 삶의 질 제고 방안과 몰입육아

이번 연구 결과 중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몇 가지 확인되었는데, 우선 재량시간의 활용 등에 있어서 비육아가구는 TV/미디어 시청 등 수동적인 활동 시간이 길게 나타나는 데 반해 육아가구는 문화/관광 등 적극적인 시간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는 측면이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고학력자가 자녀 직접 돌봄 및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높게 나타나며 그 격차가 초등 고학년대에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몰입육아의 특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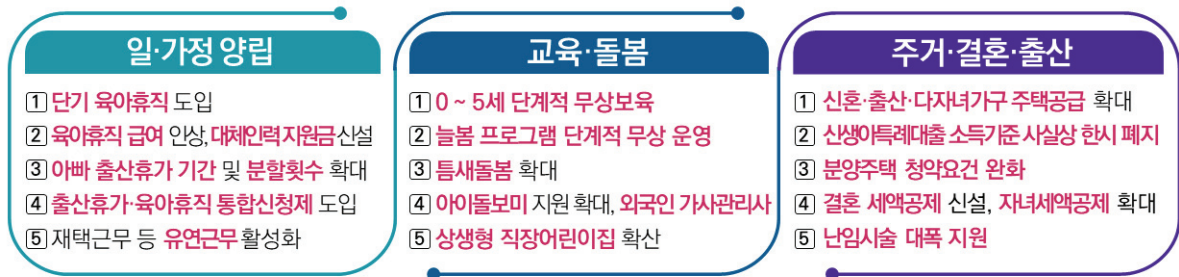
육아가구 대상 삶의 질 지표 조사에 따르면 육아가구는 전반적으로 비육아가구에 대비하여 삶의 질, 소득소비 등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우울 등 근심도가 높은 측면이 있다. FGI 등에 따르면 자녀 양육으로 인한 삶의 성숙도, 자녀와 함께하는 문화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행복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것이 설문조사 등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향후 삶의 질 지표 조사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정책 추진방향 설정에 있어서의 정책적 함의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1)일가정 양립, 2)양육 부담 완화, 3)주거지원 등 3대 핵심 분야를 지원 계획을 밝혔다.

향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및 정책 개선에 있어서 육아가구의 부모의 특성 및 육아가구의 행동양식의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지원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일가정 양립 부분에 있어서, 아빠의 돌봄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남성 육아휴직 등 제도가 확실히 정착하도록 하고, 여성의 커리어·경력 지속 욕구가 자녀 육아로 좌절되지 않도록 유연한 근로문화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게 제도 안착시까지 꾸준히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교육·돌봄 부분에 있어서도, 밀레니얼 세대의 높은 교육열

〈저출생 추세반전을 위한 대책 - 3대 분야 15대 핵심 과제〉



을 고려하여, 시설 돌봄의 양적 확대·보편화에 더해 부모의 교육 기대에 부합하는 교육·돌봄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늘봄학교 등 교육부의 돌봄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소득 격차에 따라 사회·문화적 경험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에서 육아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체육활동의 접근성 확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공연·전시·체험활동 등 확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유아의 의료비 지원은 확대되고 있으나, 40대 미취업 여성의 사회적 고립도와 우울도·근심도 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육아 부모에 대한 신체적·심리정서적 지원책 마련도 검토해볼 수 있다. 몰입육아는 자녀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의 인지 발달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과도한 관심과 개입이 부모와 자녀 모두에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연구도 있는 만큼 필요시 부모가 양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도 검토해볼 수 있다.

정책적 대응과 더불어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으로 바꾸고, 가족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아이를 환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과 힘을 모으고 있으며, 지난 8월 경제계, 학계, 종교계, 방송계가 힘을 모아 ‘저출생 극복 추진 본부’가 출범했다. 아이 키우는 즐거움과 가족의 행복을 다루는 언론 매체가 늘어나면서 사회 분위기 반전에 힘을 보태고 있으며, 최근 발표한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조사’에서는 지난 3월보다 결혼 긍정과 출산 의향이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³⁾. 최근 혼인건수도 전년 동월대비 증가하고 출생아 수도 반등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조적인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결혼과 출산·양육이 남녀 모두의 생애 경력에 장애나 부담으로 귀결되지 않는 사회 조성을 위해 사회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 (3월) 70.9% → (9월) 71.5% / 자녀의 필요성 : (3월) 61.1% → (9월) 68.2%



2024년 제4차 KICCE 정책토론회

육아가구 삶의 질 제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